

재생에너지 확대로 삶의 질 높인다

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30~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 또한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원전해체와 방사선 등을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는 2019~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가 연평균 각각 0.6%, 0.8%씩 증가한다.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한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

단위)은 38.0% 개선한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이 목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업·건설·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으로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도 구축한다. 전력은 주력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과제도 마련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한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 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자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며 전력거래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

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진행한다. 특히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를 양성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전력시장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 실증·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수수료 면제 받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전북농협, 주거대출대기업 통장·적금 출시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 또는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법인전용상품 NH주거대출대기업/법인통장·적금을 지난 19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통장(입출식예금)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이고, 대출원리금 자동이체나 카드대금 결제, 직원급여이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터넷/스마트뱅킹과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적금(정기적금)은 최대 3년까지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통장(입출식예금) 보유와 카드(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업체의 요청에 따라 통장의 상품명을 '기업'과 '법인' 중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한, 출시를 기념해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통장(입출식예금) 신규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등 공기청정기(7개사), 2등 발마사지기(53개사), 3등 벽걸이시계(240개사), 4등 잡곡세트(300개사) 등 총 600개사를 추첨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블라인드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

LX, 역대 최대 규모 신입사원 296명 채용... 26일까지 원서 접수

공정한 채용문화를 선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화·LX)가 상반기 신입사원 296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채용에서는 기획경영직 9명, 국토정보직 254명, 보조직 10명, 무기 계약직 23명을 선발한다.

2014년 능력 중심 채용(NCS), 2016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LX는 채용에서도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LX는 특히, 올해 채용에서 지역상생 발전 위한 지역인재 할당제 목표비율을 23%로 상향하고, 장애인 채용할당

제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원서접수는 4월 26일까지 온라인(www.lx.or.kr)으로 진행되며 취업준비생들은 필기시험(5월 11일)과 역량면접(5월 29일~5월 31일)을 통해 6월 중순 최종 선발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특별한 하루 선물... '다정다감 문화교실' 큰 호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9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구수연)와 전북은행 본점에서 군산지역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25명을 초청해 '2019 제3회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7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을 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 조사역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 경제교육을 시작, 전북이벤트MC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한 레크레이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나만의 귀걸이 만들기 문



전북은행이 지난 19일 본점에서 군산지역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초청해 '다정다감 문화교실'을 개최했다.

화장교사가 제공했다. 특히, 나만의 귀걸이 만들기 문화강좌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보석을 선택해 직접 디자인해봄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문화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반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하루가 됐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

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웰컴투 코리아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규모학교 초청 문화체험 행사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4~5월중 도내 2개 소규모학교의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하여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을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역할, 다양한 금융생활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한 후 문화활동(전주 초코파이 만들기, 국립무형유산원 관람 등)을 진행했다. 행사는 19일 안천초등학교(진안군) 중·고등학교 및 교사(총 48명), 5월 10일 능고초등학교(정읍시) 전교생 및 교사(총 41명) 순으로 경제교육 및 문화 체험을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소규모학교 학생, 사회복지기관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어린이에 대한 초청 행사



와에도 일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향후에도 내실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경제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협손해보험,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강희상)은 6월 28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대상을 식용 벼뿐만 아니라 조사료용 벼까지 대상을 확대, 기존 보장 병충해 6종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하여 총 7종의 병충해를 보장한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험료

를 지원함에 따라 실제 농가부담은 가입지역에 따라 총 보험료의 5%~20% 수준이다.

강희상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장은 "올해는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보험료 할인 확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